

04
2018

재외동포의

창

특집: 재외동포 초청 연수 돕는 'OKFriends 봉사단' 출범



2천년 함께한 좌식문화의 원류, 친환경 난방 방식 ‘온돌’

“지구상 가장 청결한 난방 기술… 정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온돌의 구조와 원리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4세기)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 방식에서 기원했다. 한반도 전역에서 기원전 3세기~1세기 것으로 보이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발견된 만큼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놓혀 기어가게 만들어 불 윗부분을 깔고 앉는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공간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아궁이와 부뚜막을 설치해 난방뿐 아니라 취사·조리에도 열을 재활용했다. 온돌에서 파생된 문화도 다채롭다. 온돌의 열기로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는 식문화, 가마솥에 탕을 끓여 먹는 식문화,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서 생활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관습, 신발장, 온돌용 침구, 소반처럼 높이가 낮은 가구, 절을 올리는 예절문화,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문화, 앉아서 즐기는 놀이문화 등이 다 온돌에 기반을 둔 문화양식이다.

대중성도 높다. 대부분의 한국 주택에는 현대식 개량 온돌(온수 보일러)이 설치돼 있고, 핀란드의 사우나나 일본의 온천처럼 대중이 온돌문화를 체험하며 열 접촉으로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 문화가 보편화해 있다.

중국에서 온돌문화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해온 김준봉 베이징공업대학 교수는 “지구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유익하고 청결한 난방 방식이 바로 온돌”이라면서 “온돌이 문화적으로 독창성과 우수성, 대중성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온돌은 혹한의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로, 고유한 주거기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참]



온돌문화는 원시적 형태의 난방 방식에서 기원했다. 문화재청은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사진은 충남 예산에 있는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 고택의 아궁이.



- 02 한국의 얼 2천년 함께한 좌식문화의 원류, 친환경 난방 방식 '온돌'
지구상 가장 청결한 난방 기술... 정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04 특집 재외동포 초청 연수 돕는 'OKFriends 봉사단' 출범
"차세대 동포와 국경 없는 우정 나누며 모국이해 도울 것"
- 06 화제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등 포함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
- 08 기획 관광붐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베트남 다낭 한인사회
문 대통령 "베트남은 新남방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 10 글로벌 코리아 대(代) 이어 日서 인권운동 펼치는 최선혜 씨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출간한 재미동포 화가 문범강 교수
말단에서 시작해 성공신화 쌓은 후쿠오카 베니키아 칼튼호텔 김현태 회장
- 12 동포소식 인도 교민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한글학교 교육 지원 요청 외
- 15 동포 캘린더 미국 네바다 주에서 한국전쟁 참전비 제막 외
- 16 지구촌 통신원 100년 전 프랑스서 臨政활동 도운 한인 노동자 37인 명단 찾았다
전사자 묘지조성 등 험한 일로 번 돈 기부... 한인 단체 결성에도 참여
- 18 한민족 공감 안중근 의사 추모식 中 다렌서 거행... 정부 대표 2년 만에 참석
보훈처장 추모사 "위국헌신 정신 되살려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겠다"
- 19 유공동포 기부와 헌신의 삶... '하와이 한인사회' 대부 김창원 회장
2003년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성공적으로 이끌어
- 20 OKF 뉴스 한국으로 시집 왔다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자녀 도서 지원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깐~니~프!
백동흠 뉴질랜드 2017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대상
- 24 고향의 맛·멋 푸짐하고, 영양 많고, 저렴하고... 50여 년 역사 향토음식 '춘천닭갈비'
'춘천가면 꼭 먹어봐야'... 닭갈비 음식점 300여 곳 달해
- 26 재단공지 '제20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하세요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모국을 찾는 동포 학생의 연수 등을 돕는 '제 7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4월 6~7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봉사단의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봉사단원 간의 팀워크를 도모했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초청 연수 돕는 ‘OKFriends 봉사단’ 출범

“차세대 동포와 국경 없는 우정 나누며 모국이해 도울 것”

재외동포재단은 모국을 찾는 동포 학생의 연수 등을 돕는 ‘제 7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4월 6~7일 강원도 원주 오코밸리리조트에서 열었다.

재단은 2012년부터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를 비롯한 동포 재단 행사에 국내 대학생과 동포 유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해 동포 차세대의 모국 이해 및 교류를 돕고 있다. 지난해까지 258명이 참석했다.

재단 관계자는 “7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모국 연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한글학교 교사 등의 모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등에 앞장선다”며 “특히 여름에 개최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초청연수’에서 그룹 리더로 활약하며 차세대 동포들의 모국 체험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초청행사에서 통역·안내 등 감초 역할

봉사단은 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를 돕는 국제 교류 분야 활동을 전개하며 다양한 행사보조 활동과 그룹리더 활동 등을 전개한다. 그리고 봉사활동 전반을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널리 알리는 것 등 3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한다.

국제 교류 분야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참여를 비롯해

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각종 동포 초청행사에서 통역 관련 봉사도 하게 된다.

중국,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유학 온 동포학생들은 봉사단 활동으로 각종 행사에서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을 하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데도 앞장선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상승하고 OECD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재외동포 차세대의 모국 유학이 늘어나고 있다.

재단은 이 가운데 우수한 인재들에게 학비 지원 등 모국 유학의 기회를 부여해 장차 동포사회와 모국을 잇는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활동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각종 행사 활동의 사진이나 글 또는 동영상을 알리는 소셜네트워크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멕시코 동포로 7기 단장을 맡은 김근령(고려대) 씨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동포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면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리더로서 포부를 밝혔다.

이어 “봉사단 자체가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구성돼 자연스럽게 글로벌한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며 “재단 행사에서 통역과 안내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1



2



3

제7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및 워크숍
 일시 : 2018. 4. 6(금) ~ 7(토) 장소 : 한솔오크밸리 주최 : 재외동포재단



4

SNS를 활용한 네트워크와 행사 홍보

봉사단은 김근령 단장과 정예나 부단장 밑에 기획팀(팀장 황유나), 통번역팀(팀장 김윤아), 홍보팀(팀장 장민희)으로 나눠서 올해 펼칠 각종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도 열었다.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단체 카톡, 페이스북을 개설해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초청 연수 참가자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봉사단은 참가자들에게 모국 명절과 전통예절 알려주기, K팝 등 최근 유행 대중문화와 청년 관심사 소개하기 등을 제안했다. 재외동포는 현지 국적 소유자도 많은데다 현지에서 태어난 2세의 경우 모국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모국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민희 홍보팀장은 “카톡 등 SNS를 통해서 팀원이 함께 공유하는 창을 만들어서 공지를 전달하고 수시로 아이디어도 모을 것”이라며 “기획팀, 통번역팀과도 상시 교류하는 통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원 중에는 재단의 초청연수에 참여했던 이도 있고, 초청 장학생도 있으므로 선배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오픈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누겠다”고 소개했다.

김윤아 통번역 팀장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이 가능한 팀원을 구성해 각종 행사에서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모국 행사 참가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3년째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출신 황유나(고려대) 기획팀장은 “리더십 함양에도 도움이 돼 매년 참여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모국을 찾은 동포 학생들과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단은 단원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운동회, 강연)를 주선하고, 청소년 대학생 초청연수와 한글학교 연수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획도 세울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기간에 공공외교 행사로 진행할 플래시몹의 안무를 익히는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7기 봉사단원들은 발대식 후 “재외동포는 사는 나라도 국적도 제각각이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낯설지 않고 금방 친숙해진다”며 “고국에서 서먹함이 없도록 진정성 있는 배려와 교류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1. '제7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에서 봉사단원들이 활동 규약을 지킬 것을 선행하고 있다.
2. 제7기 봉사단원 70명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올해 말까지 각종 행사에서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3. '제7기 OKFriends 봉사단'은 재단의 각종 행사에서 안내와 통역 보조 등을 맡는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김장 나눔 봉사활동 모습.
4. 재외동포 초청연수 모국 유학생활 적응을 돕는 '제7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이 4월 6~7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조트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등 포함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



1. 3월 2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지 모습.
2.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이 발의된 것은 1987년 6·10 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9차 개헌안 발의 후 31년 만이다. 특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아래서 대통령 간선제를 주축으로 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동의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



3.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3월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4.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부개헌안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개헌안 부칙에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후임자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개헌안 발의의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첫 번째 이유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

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횡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이유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야권과 시각차이 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될 가능성 불투명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실제로 개헌 국민투표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월 3일 내각제 요소를 대폭 가미한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한국당 개헌안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총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각과 의회 사이에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되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회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한국당 개헌안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정부 발의 개헌안과는 권력구조에서부터 충돌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헌정특위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정]**

관광붐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베트남 다낭 한인사회

문 대통령 “베트남은 新남방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1.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월 22일 오후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왼쪽 첫 번째), 박충건 사격대표팀 감독(왼쪽에서 여덟 번째), 베트남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호앙 쉐앙 빈(왼쪽에서 아홉 번째),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 내외를 비롯한 베트남과 인연이 있는 체육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끝없이 펼쳐지는 해안이 아름다운 중부 베트남 중심지 다낭. 월남전 때는 미군 휴양지였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기적에 가까운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92년 5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연간 교역량이 2017년에는 6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4년 이래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22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됐다.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과 유학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2만1천709명 가운데 베트남 출신(27.9%)이 처음으로 중국(26.9%)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건너온 결혼이민자는 상당수가 한국계 동포(조선족)인 것을 고려하면 ‘베트남댁’은

결혼이주여성을 대표하는 호칭이 됐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존재는 뚜렷하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포는 작년 기준 약 15만 명(외교부 집계)에 이르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들은 베트남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한다. 방송, 가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음식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방문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양국 관계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월 22일 하노이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한·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양으로 넓히는 신(新)남방정책을



3



4



5

3. 작년 8월 12일 다낭에서 열린 베트남 중부 한베가족 모임. 호찌민, 하노이 외에 다낭에도 한베가족협력회가 있고 회원은 70~80명에 달한다.
4. 베트남 중부한인회가 작년 10월 28일 주최한 한글 말하기 대회.
5. 지난해 1월 다낭 외대에서 열린 한베 문화교류 행사.

주둔했고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최전방이기도 하다. 종전 43주년을 맞은 현재 전쟁의 상흔이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새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 하루 5천여 명... 여행 가이드 1천여 명, 다낭 한인사회 최대 직종

이곳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하루 5천여 명. 3박 4일 일정으로 치면 1만5천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이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셈이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사 가이드들에게도 다낭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여행 가이드는 1천여 명 수준. 여행 가이드업이 이곳 한인사회의 최대 직종이다. 대부분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웃 국가에서 가이드 영업을 해온 동포이다. 관광업이 뜨자 식당, 마사지숍, 가라오케 등 관련 업종들도 몰려들고 있다. 서너 곳밖에 없던 한식당은 지금 100개가 넘었고 마사지숍도 수십 곳에 달한다.

관광업이 뜨기 시작한 것은 4~5년밖에 안 되고 2년 전부터 완전히 뜬 상태이다. 다낭시 인구는 100만 명에서 최근 170만 명으로 늘어났다. 베트남에는 하노이 호찌민 그리고 다낭을 비롯한 중부 지역 3곳에 한인회가 있고 돌아가면서 총괄회장을 맡는다. 베트남 중부한인회는 처음에는 친목단체 성격으로 결성됐으나 국내 마산, 대구시 등과 자매결연을 통해 건설업 진출로 이어지면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자 이곳 한인회도 덩달아 일이 늘어났다. 하노이에서 순회 영사가 한 달에 한 번 내려오지만, 관광객 여권 분실 등 다양한 민원 업무는 한인회 부회장이 하노이 영사관과 연락해서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한인회 주관으로 송년회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베트남 중부한인회 박승림(69) 회장은 1995년 호찌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낭에 와서 무역업을 시작한 이 지역 한인사회의 터줏대감이다. 박 회장은 다낭과 인접 광남성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유에 대해 "세계 5대 해안으로 꼽히는 다낭 비치를 비롯해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다가 물가도 싸다"면서 "여행지로서 잠재력이 커 관광산업이 몇 배로 커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형제처럼 단합이 잘된다"며 "한인회가 한인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합심해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장**

추진하고 있다"며 "그중에서 베트남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양국 모두에게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넘어 동포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내에서 요즘 높은 관심을 받는 곳이 다낭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곳은 수도 하노이나 최대 도시 호찌민이 아니라 다낭이었다. 다낭은 하노이 호찌민과 함께 3대 특별시가 됐고 베트남 내 2곳밖에 없는 카지노도 허용하는 등 베트남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낭은 월남전 당시 해병대 청룡부대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과 받을 때까지 집회 계속”

대(代) 이어 日서 인권운동 펼치는 최선희 씨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군인·경찰·폭도 등이 6천여 명의 조선인을 살해한 일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확인·사과 등이 공식화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겁니다.”

매년 9월 1일 일본 도쿄의 재일한국YMCA에서는 관동대지진 때 희생된 조선인이 존재를 알리는 집회가 열린다. 지진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방화했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인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이들의 존재와 역사를 일본사회가 외면하거나 잊으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집회다. 이 행사를 주도하는 9·1집회 실행위원인 최선희(52) 씨는 재일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고(故) 최창화(1930~1995) 목사의 딸이다.

최선희 씨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재일동포 멸시의

상징이며 차별과 인권침해의 원점이다. 이를 규명해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은 일본이 다문화 공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인권운동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아버지가 주장했던 재일동포 차별 금지는 일부만 이뤄졌을 뿐”이라며 “과거에는 우익만이 반대했다면 이제는 일본사회 전체가 인권에 눈을 감으려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날인 등록이 차별이라며 거부운동이 시작되자 그는 부친과 함께 참여했고, 재판과정에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방송 등 미디어에서 한국인 이름을 발음 그대로 읽고 있고 지문날인도 없어졌지만, 관동대지진 학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와 탄광에 강제징용돼 희생된 이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최근의 헤이트스피치 등에서 보듯 재일동포 인권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안타까워했다. 부친이 남긴 200박스에 달하는 인권운동 자료 정리에도 매달리는 최 씨는 “기념관 건립이나 평전 출판 등을 통해 평생 인권개선에 헌신해온 부친의 삶을 알리는 것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했다.



“북한미술은 획일적?...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독창성 확보”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출간한 재미동포 화가 문범강 교수

재미동포 화가이자 미술사학자인 문범강(63) 조지타운대 교수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평양을 9차례 방문해 미술품 제작 집단인 창작사와 전시관을 방문하고 여러 작가를 만난 성과를 정리한 책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를 출간했다.

출판사 서울셀렉션이 펴낸 이 책에서 문 교수는 ‘조선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조선화는 ‘북한의 동양화’로 한국화나

중국화와는 구별된다.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처럼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한 회화 양식으로, 대부분 수묵 채색화다.

북한미술은 보통 소련 스탈린 통치 시절에 태동해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로 분류된다. 이 조류는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미술품을 제작해 주제가 한정적이고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문 교

수는 이러한 통념에 과감하게 반기를 든다. 그는 “조선화는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 중에서도 독특한 표현방법에 천착해 왔다”며 “특히 인간 내면의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해 과감한 붓 터치로 표현한 인물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사위이기도 한 문 교수는 3월 13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도 북한미술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미술 연구로 인해 친북 인사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한 듯 “나는 반공주의자이자 예술가”라고 거듭 말했다. 지난해 여름 미국 워싱턴 아메리칸대에서 북한미술품 전시를 기획했던 문 교수는 오는

9월 7일 ‘상상된 세계들’을 주제로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서 큐레이터로서 북한미술 작품을 공개한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북한 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로 꾸미려고 하는데, 정부가 아직 작품 운송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의도한 대로 전시가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베니키아 브랜드 일본 진출 선도... “호텔업 해외 진출 서둘러야” 말단에서 시작해 성공신화 쌓은 후쿠오카 베니키아 칼튼호텔 김현태 회장

“한국 정부의 호텔 브랜드인 베니키아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베니키아 해외 1호점 일본 후쿠오카 베니키아 칼튼호텔을 운영하는 김현태(61) 회장. 말단 호텔 직원에서 시작해 한일 양국 호텔 지배인을 거쳐 자신의 호텔을 경영하며 성공신화를 쌓아온 그는 “관광산업은 숙박·음식·상업·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는 산업”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는 외국인 유치를 넘어서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해외 한상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희대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힐튼호텔을 거쳐 라마다호텔 총지배인을 지냈고, 일본에서는 IP시티호텔 총지배인을 거쳐 2013년 현재의 호텔을 인수해 자신만의 호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롯데호텔에 입사해 5년 만에 프런트 지배인으로 고속 승진했던 그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일본의 관광업을 제대로 배워보려고 과감히 퇴사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일본 도쿄 센슈대에서 서비스마케팅으로 석사를 마쳤고 경원대에서 국제서비스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뒤 한국과 일본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말은 호

텔마다 매출 신장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 만년 적자였던 지금의 호텔을 인수해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이후 매년 100%를 웃도는 매출 신장을 올리고 있다. 베니키아 유후인호텔을 위탁 경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오사카 비즈니스호텔도 베니키아 체인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호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직원들과 지역 청소 봉사를 꾸준히 벌였고, 한류 팬들을 위해 호텔에서 ‘한국어 교실’도 열어 지금까지 860여 명의 유료생을 배출했다. 2013년 말에 베니키아호텔의 해외 체인 제안을 받자 기회라고 생각해 고민 없이 가맹했다. 서비스 선진국인 일본에서 한국 브랜드가 통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오히려 성공을 확신했다. **[창]**



인도 교민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한글학교 교육 지원 요청

재인도 한인동포들은 3월 8일 뉴델리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인도와 한국의 교류에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고 비자 발급 어려움 등 애로를 호소했다. 구상수 재인도한인회장은 교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학교 교육과 인도 대학교의



3월 8일 인도 뉴델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도 거주 동포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어·한국학 강좌 개설에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인도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는 노영진 까마인디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합의를 양국 정부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원산지 증명 사후인증이나 관세양허 품목의 적용 등에 있어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유학 가는 인도 학생에 대한 한국 정부

장학금 수혜 폭을 늘려 ‘지한파’를 확대하자거나 인도의 소프트웨어 인력과 한국의 하드웨어 인력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종합무역상사에 근무하던 1970년대 말부터 여러 차례 출장으로 인도를 방문해서

한 달씩 체류하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비자 문제 등 교민들의 애로를 인도 정부 인사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글학교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현실화와 인도 내 지한파 육성 필요성 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인도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이런 변혁기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서 교민들의 사업 성공을 기원했다.

‘김영옥 고속도로’ 명명 결의안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정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5번 고속도로 일부를 미국의 전설적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 이름을 따 ‘김영옥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결의안이 최근 주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3월 7일 알려졌다. 한인 1.5세인 최석호 주 하원의원(공화당)과 샤론 쿼크 실바 하원의원(민주당)은 지난달 말 김 대령을 기리기 위해 한인 밀집 거주지인 오렌지카운티 북부 지역의 5번 고속도로 구간을 ‘김영옥 대령 기념 하이웨이’(Colonel Young Oak Kim Memorial Highway)로 명명하는 내용의 결의안(ACR 188)을 공동 발의했다.



2003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을 당시의 고(故) 김영옥 예비역 미 육군 대령.

결의안에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경계 남쪽의 도로 인근 지점에서부터 91번 프리웨이 교차점까지를 ‘김영옥 고속

도로’로 명명하는 내용과 함께 고속도로 양방향 각 1개씩, 총 4개의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인의 이름을 딴 첫 고속도로 구간이 생긴다. 주 교통국은 민간단체의 기금을 받아 표지판을 설치한다. 현지 한인사회는 결의안이 오는 9월 15일 이내 상·하원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인 김영옥 대령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웠다. 1972년 대령으로 전역한 이후 한

인건강정보센터·한미연합회(KAC)·한미박물관 등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등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했으며 미국·프랑스·한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다.

세계한인 경제인들 '1회원사 1모국청년 채용' 캠페인 선포



4월 8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부영호텔 우정홀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해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 '1회원사 1모국청년 채용' 캠페인 선포식 장면. 4월 6일 오후 제주도 컨벤션센터(ICC)에서 장영식 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은(오른쪽)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모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나섰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4월 6일 '1회원사 1모국청년 채용' 캠페인의 개시를 선언했다.

선포식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월드옥타 '제20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식에서 거행됐다. 장영식 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서 4개 항의 회원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전달했다. 캠페인 주체는 전 세계 74개국 146개 월드옥타 지회 전 회원이다.

결의문에는 ▲월드옥타 전 회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모국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1회원사 1모국청년 채용' 캠페인에 나서고 ▲월드옥타는 향후 3년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하며 ▲월드옥타 전 세계 지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지 정착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은 "이 캠페인은 단순히 국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회원 한분 한분이 가진 해외 진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진 능력을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해외 네트워크를 청년들에게 접목하면 가까운 미래에 청년들은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8%이며 체감 실업률은 23%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뜻"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가 앞으로 4년 동안 39만 명이 새롭게 사회로 나오는데 이들 중 14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한다"고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청년 실업 대책의 주요 골자는 취업, 창업,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라면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해외 일자리는 동포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기출 회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간에 '청년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이뤄졌다. 2021년까지 제주 청년인력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협력키로 하는 내용이다. 두 기관은 우선 4월 7일 ICC에서 제주대·제주 한라대·제주 관광대·제주국제대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청년인력 해외취업설명회'와 '취업상담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대륙별 9개 지역의 한인 경제인들이 나와 현지 취업 환경과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상담회에는 채용을 희망하는 45개 회사와 제주 청년 100여 명이 참가했다.

월드옥타는 1981년 4월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모국 투자, 동포 무역인 육성방안, 모국과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등 모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했으며 현재 정회원 7천600여 명, 준회원은 2만7천여 명에 이른다.

재일민단, 한인가정 2만 호 방문사업 실시... “동포사회 통합”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이하 민단)이 동포사회의 대통합을 위해 한인 가정 2만 호 방문사업에 나선다. 2월 22일 출범한 새 집행부는 민단 활동에 적극적인 1~2세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현지화하는 차세대를 끌어안겠다는 목표 아래 중앙본부와 48개 지방본부가 5월부터 동시에 단원 가정을 중심으로 호별 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며, 이를 통해 새로 작성한 명부는 지진 등 긴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건이 단장(사진)은 “올해는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에 거주했던 구정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1980년대 이후



재일민단 여건이 단장. 민단은 2월 22일 중앙대회를 열고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의장을 단장으로 선출했다.

일본으로 건너온 신정주자, 일본 국적 취득 동포, 국제결혼 가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차별실태나 불우이웃 현황도 파악해 지원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적자 42만 명에 귀화자를 포함하면 재일동포는 100여만 명에 이른다”며 “다양한 구성원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얼굴을 맞대는 가정방문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단 단원은 8만 세대 정도로 추정된다.

민단은 2015~2016년에도 현황 파악을 위해 아이치, 시즈오카, 후쿠오카 등에서 호별 방문을 추진한 바 있다. 민단은 정체성 확립과 생활지원 확대 등의 사업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언론인들,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촉구

세계 각국의 한인 언론인들은 4월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회와 각 정당은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라. 더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정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창·김소영)가 주최하는 ‘2018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가한 23개국 65명의 한인 언론인은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투표권 개정’을 불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4월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주 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제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은 상태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현재가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창립된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고국을 찾아 세계한인언론인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미국 네바다 주에서 한국전쟁 참전비 제막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미국 네바다 주에 한국전쟁 참전비가 세워졌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3월 3일 네바다 주



서던네바다 베테랑 메모리얼 묘역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참전비 제막식에 참석해 "네바다 주 3만4천200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용명과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인사회는 참전비 건립기금의 80%를 모금했다. 참전비에는 전사한 참전용사 37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재일동포 차세대 · 일본 한류팬 위한 한국어교재 발간

일본 오사카의 재외한국학교인 금강학원(교장 윤유숙)은 재일동포 차세대와 일본의 한류팬 등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심쿵심쿵 신나는 한국어교실'을 발간했다고 3월 27일 밝혔



다. 초·중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재는 읽기·쓰기·말하기·듣기를 12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워크북 형식으로 만들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금강학원은 한국 교육부 지원을 받아 1년간의 편집작업을 통해 이 교재를 개발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코리아타운에 한인 상징물 생긴다

브라질한인회 등이 참여한 한인상징물조성위원회는 3월 17일 상파울루의 코리아타운 봉헤치로 거리에 한국적 이미지의 조형물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시의회가 봉헤치를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추진된 사업으로 중심지인 프라치스 사거리에 10평 규모로 남성상(6m)과 여성상(5.5m) 한 쌍이 들어선다. '우리'라는 명칭의 이 조형물은 한국의 '장승'을 모델로 삼았다. 걷는 모습으로 자음과 모음을 사용해 얼굴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한국 모든 것 호주와 소통' 5월 시드니서 한민족 축제

호한문화예술재단(회장 고동식)과 시드니한국문화원(원장 박소정)은 5월 5~6일 시드니 달링하버의 텀발롱 파크에서 '2018 시드니 한민족 축제'를 연다. '한국의 모든 것을 호주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열릴 축제는 태권도 시범과 남사당패 공연, K-팝 월드 페스티벌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4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한인사회 최대 규모 행사다.

유럽한인총聯 회장에 유재현 전 재독한인총연합회장

유럽한인총연합회는 3월 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16대 회장으로 유재현(64) 전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을 뽑았다. 유 회장은 단독 입후보했고, 찬반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표차(찬성 69, 반대 2)로 새 회장에 당선됐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광고회사인 '에드비전'과 무역회사 '온비즈'를 운영하는 그는 한인 차세대와 입양인을 위한 청소년유변대회와 체육대회를 각국



한인회와 손잡고 더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폴란드 바르샤바민속박물관에 한국실 열어... 자료 40여 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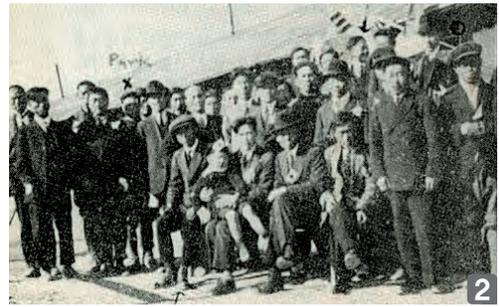
폴란드 바르샤바민속박물관에 한국 민속을 알리는 한국실이 2월 23일 문을 열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폴란드 마조비에츠키 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바르샤바민속박물관 2층 로비 169㎡ 공간에 한국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 수교 30주년을 한 해 앞두고 바르샤바민속박물관에 한국실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실은 최소 15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년 전 프랑스서 臨政활동 도운 한인 노동자 37人 명단 찾았다

전사자 묘지조성 등 험한 일로 번 돈 기부...한인 단체 결성에도 참여

1862 1919	M. J. P. de Paris	Poig Joseph	Espagnol	Recepiiste carte vote	Suippes
1862 1919	- d.°	Garcia Modesto	Espagnol	Recepiiste carte vote	Suippes
1862 1919	- d.°	Pei Yung Ho	Coreen	Recepiiste carte vote	Suippes
1862 1919	- d.°	Pak Sun Oo	Coreen	Recepiiste carte vote	Suippes
1862 1919	d.°	Cheng beng che	Coreen	Recepiiste carte vote	Suippes
1862 1919	- d.°	Ha Jin Sey	Coreen	Recepiiste carte vote	Suippes



1. 100년 전 프랑스 쉬프에 거주했던 한인 노동자들의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사진 자료에서는 한국인(Coreen)인 배영호(Pei Yung ho), 박선우(Pak Sun Oo), 장동채(Cheng Teng Tche), 하진서(Ha Jin Sey)가 1919년 10월 19일 쉬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2. 한인노동자와 임시정부 파리위원회 인사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재법한국민회가 1920년 3월 1일 쉬프에서 개최한 3·1운동 1주년 기념식.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나기호의 회고록 '비바람이 몰아쳐도' (1982·양서각)에 수록된 사진이다.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프랑스로 이주해 1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복구하는 고된 삶을 살던 한인들이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면전을 벌인 전장에서 나온 시신을 묘지에 안치하는 험한 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임시정부의 활동을 돕고 3·1 운동 1주년 기념식까지 열었던 사람들...

이들의 이름과 출생지, '한국인'이라는 국적이 명확히 기재된 거주자 명부가 프랑스 지방정부 소장자료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파리 7대학(디드로대학) 한국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독립운동사 연구자 이상규 씨는 파리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소도시 쉬프(Suippes)에서 100년 전 거주하던 한인들의 명단을 프랑스 지방정부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이 씨가 작년 가을부터 쉬프 시를 관할하는 마른(Marne) 도청 자료실을 뒤져 최근 찾아낸 1920년 쉬프 시청의 외국인 명부에는 박춘화·박단봉·차병식·배영호·

박선우 등 한인 3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프랑스 도착 일자, 프랑스 정부에 체류증을 신청한 날짜, 직업 등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제 치하에서 외국의 한국인들이 일본이나 중국 국적자로 활동했던 것과 달리 이 명부에는 한인들의 국적이 한국인(Coreen)이라고 명시된 것이 큰 특징이다.

국제사회에서 당시 한국은 일제의 침략 이후 이미 소멸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인 노동자들이 한국 국적으로 프랑스의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는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국을 빼앗긴 채 러시아 연해주와 북해, 영국을 거쳐 프랑스로 건너온 한인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1차대전 격전지였던 베르덩(Verdun) 인근의 소도시 쉬프에 정착해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했다. 베르덩 전투에서 독일·프랑스 양측은 70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를 냈고, 승전국 프랑스의 대규모 복구사업에는 한인뿐 아니

라 벨기에·스페인·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장규 씨의 현장 조사결과 당시 한인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폐허가 된 마른 지방 일대의 철도 복구, 시신과 유골 안치, 묘지 조성사업에 주로 참여했다. 쉬프항토사연구회 장노엘 우댕 회장에 따르면 한인들은 현재의 쉬프역 인근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 이 씨는 “지금도 한인들이 살던 집이 몇 채 남아있으며, 현지의 시장이나 향토사 연구자들이 한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도형 수석연구위원의 논문 ‘프랑스 최초의 한인 단체 재법한국민회 연구’에 따르면, 쉬프의 한인들은 당시 전쟁 폐허를 복구하는 고된 삶을 살면서도 1919년 11월 재법한국민회(在法韓國民會)라는 한인 단체 결성에 참여했다.

한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인사들이 이 단체의 주축이었다. 한인 노동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돕는가 하면, 유학생과 지식인 동포들로부터 한국역사와 지리, 국어 등을 배우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3·1운동 1주년 기념식 쉬프서 개최… 프랑스에 울려 퍼진 만세삼창

사료로 남은 이들의 가장 큰 외부 활동은 1920년 3월 1일 쉬프에 유럽 각지의 한인들을 초대해 3·1 운동 1주년 기념 경축식을 연 것이다. 당시 신문 ‘신한민보’에 따르면, 경축식에는 한인 노동자 35명과 학생 10여 명, 영국 런던에서 가족을 데리고 온 10여 명,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인사들이 모였다. 행사장의 벽에는 한국과 프랑스의 국기가 걸렸고, 참석자들은 애국가 합창과 ‘대한독립 만세’ 삼창 등을 하며 1년 전 조국에서 들불처럼 번진 3·1 운동의 정신을 기렸다. 이 행사의 비용은 쉬프 거주 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둬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파리위원부에 6개월간 6천 프랑의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한인 노동자들의 프랑스 정착과 생활을 도운 핵심 인물은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서기장 황기환이었다. 수원 태생의 그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1차 대전 발발 후 미군 소위로 참전, 베를린에 주둔할 때의 인연으로 1919년 임정 파리위원부에 합류했다. 황기환은 영국 에든버러에 있던 한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송환될 뻔한 것을 영국 정부를 설득해 프랑스로 일부를 이주시킨 장본인이다. 러시아 연해주를 거쳐 북해 무르만스크의 철도공사에서 일하던 한인들은 1차대전



100년 전 프랑스 전후복구 참여 한인들이 거주했던 쉬프 지역의 현 주택가의 모습. 당시 주택 몇 채가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사진 이장규 씨 제공)



파리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소도시 쉬프에서 100년 전 거주했던 한인들의 명단을 확인한 이장규 씨(왼쪽, 파리 7대학 한국학 박사과정), 가운데는 한인 사료 발굴을 도와준 쉬프 시의 장레몽 에공 시장, 오른쪽은 장석홍 국민대 교수.

끝나자 1919년 이곳을 점령한 영국군에 의해 에든버러로 건너갔고, 영국 정부는 당시 동맹국(영일동맹)인 일본의 요구에 따라 이들을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프랑스에 있던 황기환이 이런 소식을 듣고 영국으로 건너간 뒤 영국 정부에 항의, 한인 노동자들의 일부를 프랑스로 이주시키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 마른도청 소장자료에서는 당시 쉬프의 한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한 기록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인 이도순·백오남 부부가 1921년과 1924년 낳은 ‘루이’와 ‘조르제트’라는 이름의 자녀 출생증명서로, 한인 박병서, 박춘화가 동포 자녀의 출생신고 증인을 선 것으로 돼 있다. 한인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전후 폐허를 복구하는 힘든 삶 속에서도 후손들을 낳아 기르고 가르치던 삶의 편린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파리 디드로대에서 한국독립운동을 강의한 장석홍 국민대 교수는 “한인 노동자들의 실체가 100년 만에 프랑스 기록으로 확인된 사례로, 프랑스 최초의 한인 이주집단 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했다. **[참]**

김용래 연합뉴스 파리 특파원

안중근 의사 추모식 中 다렌서 거행... 정부 대표 2년 만에 참석

보훈처장 추모사 “위국헌신 정신 되살려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겠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인 3월 26일 중국 장소인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렌(大連)에서 그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기념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한중친선협회(회장 이세기 전 통일부 장관)와 다렌 한국인(상)회(회장 박신헌), 민주평통 다렌지회(회장 문성민)가 공동 주관한 추모식은 이날 다렌시 휘순커우(旆順口)구 소재 휘순감옥박물관 내 안 의사 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추모식에는 박영완 민주평통 선양협의회 회장, 임승호 다렌 한국국제학교 교장, 교민 등 200여 명 이외에 임성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도 2016년에 이어 2년 만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3월 26일 중국 랴오닝 성 다렌시 휘순감옥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108주기 추모식에서 다렌 한국 국제학교 임승호 교장과 학생들이 안 의사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임 국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의사님은 만주 하얼빈역에서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주살하는 숭고한 의거를 일으켰고, 옥중투쟁으로 동양평화론을 집필해 조국 독립을 넘어 세계평화로 가는 참된 길을 제시하셨다”고 기렸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이후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미북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등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과 마주한 이때 의사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국헌신 정신을 되살려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은 “일제 재판정에서 이토의 15가지 죄명을 당당히 밝혀 세계를 놀라게 한 안 의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108년간 유해를 찾지 못한 후손들의 잘못을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박신헌 다렌한인회장은 “참여하던 한중관계 회복 조짐이 보이고 기적 같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새 대한민국 정부에 신뢰와 기대를 보내며, 안 의사께서 당부한 동양평화와 통일 한국을 위해 노력하면서 순국선열 희생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다렌 현지에선 매년 안 의사 순국일에 맞춰 교민단체와 한중친선협회가 추모행사를 개최해왔고, 2015~2016년 2년 연속해 국가보훈처 주최 정부 행사로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반한 정서를 고려해 민간행사로 치렀다가, 올해에는 국가보훈처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내부 수리를 이유로 2016년 10월 휘순감옥박물관 문을 닫고 반 년간의 공사 끝에 작년 5월 재개관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을 겨냥해 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민주평통 다렌지회 주최로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 특강, 조선족 동포로 구성된 다렌안중근 연구회의 추모 학술대회가 각각 열렸다.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일제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고 체포돼 휘순감옥(당시 명칭은 관동도독부 감옥소)에 5개월간 갇혔다가 일제 법정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1910년 3월 26일 순국했다. **장**

기부와 헌신의 삶... '하와이 한인사회' 대부 김창원 회장

2003년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미국 내 한인의 위상을 높인 '하와이 한인사회 대부' 김창원 회장이 3월 27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낸 그는 평소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부음을 접한 하와이 한인사회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애도했다. 고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화공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전쟁 때 미군 통역관으로 일하다 1952년 하와이에 이주해 하와이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건축회사에 입사해 말단 직원에서 회장직에 오르는 샐러리맨 신화를 이룩한 뒤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에서 기부와 헌신의 삶을 실천했다.

미주한인 최초의 하와이주립대 이사장과 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고, 60만 달러 상당의 사재도 기부했다. 3달러 모금운동을 주도해 미주한인이민100주년기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발전기금 150만 달러를 쾌척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하와이 한인사회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로 한인 은행 '오하나 퍼시픽은행'을 설립했고, 유명을 달리 하기 전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다. 2009년에는 한국의 KAIST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지 바라며 100만 달러를 내놓았다.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그는 "교육이 좋지 않으면 나라가 좋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몇



2009년 KAIST 발전기금을 낼 당시의 김창원 회장. 총정자문위원이던 그는 회의 참석차 KAIST를 방문했다가 'KAIST화학생물연구센터'를 짓는데 써달라며 100만 달러를 기탁했다.

개 세우고, 몇 퍼센트가 학위를 취득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교육과 역사교육,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의식 등 기초교육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상상력을 익히고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주입식 교육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이민 100년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진 데 대해 그는 "부모님과 형님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1903년 첫 이민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인천항에서 102명이 처음 하와이로 출발할 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2003년이 하와이 이민 100주년인데 한국 정부가 도와줬고, 중국에서도 참여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참 의미 있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평생에 제일 잘한 것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이민자였기에 더 뜻깊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게는 좌우명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친이 평생 기억하라며 말씀해주신 3가지 내용이다. 첫째, 어려울 때나 실수할 때 도와준 사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과 둘째, 어디서 살든지 지역 일에 참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라는 것, 셋째는 기부를 하려면 누가 본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2003년 동포사회와 조국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한]

2003년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으로 시집 왔다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자녀 도서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3월 10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다문화 취약 가정 아동들을 위해 한국 도서 1천500여 권과 전통문화용품을 기증했다.



재외동포재단은 3월 10일 베트남 컨터시 소재 '한-베 함께 돌봄센터'에서 한-베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를 위한 도서 기증식을 열었다.

재단은 한국으로 시집왔다가 이혼·별거 후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과 그 자녀를 돕는 사업의 하나로 도서 지원에 나섰다. 기증식은 베트남 남부 컨터시 소재 '한-베 함께 돌봄센터'에서 열렸다. 돌봄센터는 귀환 가족의 정착을 돕는 단체로 지원품은 센터 내 도서관에 비치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에 활용된다.

한우성 재단 이사장은 "귀환 여성의 자녀들은 모두 한국 국적임에도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정착을 돕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조선족·CIS 고려인 현지 장학생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을 위해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현지 주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선족과 고려인으로 각각 70명씩 뽑는다.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학생에게는 1년간 1천200달러, 그 외 지역은 1천 달러를 지원한다.

선발 기준은 경제적인 형편, 한국어 능력, 교내외 수상 경력 등이며 유공동포 또는 동포사회 발전 기여자 후손이나 과학기술 전공자 등을 우대한다. 이전에 선발됐던 학생도 재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나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및 마감일을 참고해 4월 20일까지 해당 지역 공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의 동포사회 육성을 위해 학업이 우수하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이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1천101명, CIS 지역 99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우성 이사장 "한-베 결혼가정 위해 관련법 보완해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3월 26일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한-베 다문화 가정의 경우 23%가 이혼 후 부인과 자녀가 베트남으로 귀국하는 데



한국법제연구원이 3월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오른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 자녀들이 한국과 베트남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은 보육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의 아동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상 개발도상국에 거주할 경우 보육 수당 대상으로 포함하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베 다문화 결혼가정의 자녀는 한국 국적이다 보니 현지에서 건강보험과 정규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44%가 월수입 1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고 실업률도 44%에 달한다.

한 이사장은 "이혼을 하면 자녀 양육권을 아빠에게 뺏길까 봐 별거 형태로 베트남에 돌아가는 사례도 많아서 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정확한 동계가 없지만 최소 4천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은 한국어도 못하고 정체성도 없어 '제2의 라이파이한'(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돼 향후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 증진을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선택의무 및 국적이탈 요건 완화, 재외국민의 국민주권 강화 및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등 관련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바른 말 고운 말

‘양반다리’ ‘기반하다’ ‘합격점’ 도 이전 표준어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양반다리’라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세를 지칭하는 표준어는 지금까지 ‘책상다리’ 뿐이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현재 사용하는 말의 의미와 용법이 다른 것들을 바로잡고 표제어를 추가·삭제한 2017년 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30건을 3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는 ‘양반다리’ 외에도 ‘기반하다’, ‘합격점’, ‘배춧잎’, ‘금쪽같이’ 등입니다.

‘기반하다’는 본래 표준어가 아니어서 ‘기반을 두다’라는 형태로 적어야 했는데, 이제는 “실화에 기반한 영화”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긋다’는 ‘눈이 멀다’라는 뜻의 동사나 ‘언짢고 나쁘다’,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쁘다’는 형용사 외에도 접사 품사가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식상하다’에는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리다’, ‘베다’에는 ‘이로 음식 따위를 끊거나 자르다’, ‘붙다’에는 ‘살이 찐다’라는 뜻풀이가 각각 추가됐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값과 찻삿

“학생, 찻삿 내고 내려야지 그냥 내리면 어떡해!” “저 찾값 냈어요.”

위의 대화에서 차장은 ‘찻삿’이라고 얘기했고 학생은 ‘찾값’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원버스 속에서 버스표 한 장 아껴 보겠다고 슬쩍 내리려는 학생의 팔을 잡고 승강이를 벌이는 버스 차장의 목소리. 요즘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를 다닌 분들은 만원버스를 타고 통학하며 겪게 되는 이런 옛 기억 하나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찾값’과 ‘찻삿’ 중 어느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값’은 ‘혈값에 물건을 사다’처럼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을 뜻합니다. 반면 ‘삿’은 ‘품삿을 주다’처럼 어떤 일을 한 대가의 보수로 주는 돈이나, 시설을 이용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래에 물건이 오고 가면 ‘값’이고, 서비스가 오고 가면 ‘삿’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시는 차를 먹고 내는 돈은 ‘찾값’이고, 달리는 차를 타고 내는 돈은 ‘찻삿’입니다. 마찬가지로 먹는 배를 사고 내는 돈은 ‘뺏값’이고, 배를 탈 때 내는 돈은 ‘뺏삿’입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018년 3월호 정답

을	며	겨	자	먹	기	삽	화
느	반	역	마	살	화		
노	리	개	언	니	개	문	
루	골	무	은	사	외		
	다	산	오	망	중	한	
육	감	실	락	원	성		
하	가	속	자	승	자	박	
원	자	로	경	무	물		
칙	수	신	제	가	방	관	

▶ 오른쪽 방향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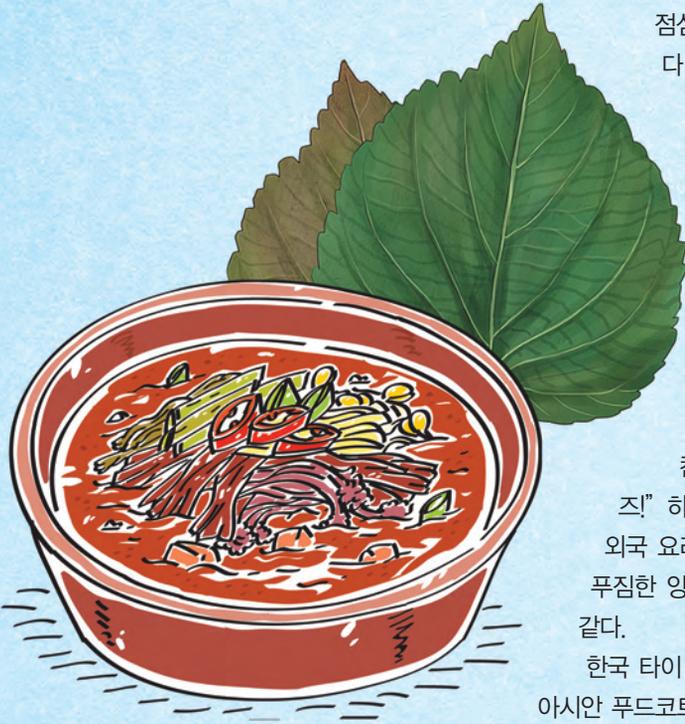
- IMF 금융위기 당시 약전고투 끝에 LPGA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용기를 준 한국 여자 골프선수
- 동글고 큰 박처럼 생긴 여름에 먹는 과일
- 앞서 던진 투수를 구원하는 투수
- ‘소쩍새’라고 불리는 빠귀와 비슷한 새. 진달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 형의 아들
- 첩첩 산속, 두메 산간
- 길가에서 술과 밥을 팔던 옛 집
-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를 동서로 흘러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 월요일을 기준으로 세었을 때 주의 네 번째 날
- 상품을 생산하는 곳
- 경상북도 남부에 위치한 광역시
- 땅이 메말라서 농작물이 나지 않음
- 아내의 여동생
- 운동 경기의 팀을 인솔하는 선수
- 좌우로 건너지른 상태. 세로의 반대
- 여우가 죽을 때 제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수〇초〇’
- 배를 부리는 사람. 뺏 ‘〇〇’이라고도 하죠
- 굵은 빗발의 비가 철새없이 세차게 내리는 비

▶ 아래쪽 방향 열쇠

- 비단에 수를 놓은 듯이 아름다운 산천. 우리나라의 별칭
- 11명의 선수가 뛰는 경기로, 월드컵이 유명하지요
- 손뼉을 친. ‘〇〇’ 갈채
-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두 개 달린 물건 신는 수레
- 여름에 발농사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만든 높은 다락집
- 개 싸움을 의미하는 한자
- 어려울 때 고생을 함께 해온 아내
- 한 골목안에서 어린애들의 대장 노릇을 하는 아이
- 일요일을 교회에서 부르는 명칭
- 한산도에서 거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가리켜 〇〇대첩이라고 하죠
- 강력히 청하여 구함. 돈을 낼 것을 〇〇하다
- 날아주신 어머니
-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풀
- 탁월한 지략과 충의로 존경받는 그는 유비를 도와 촉한을 세웠다
-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중 최고로 높은 사람
- 집안에 들여놓는 물건건의 총칭
- 운동경기는 대개 공격과 〇〇로 이루어지죠
- 혈관계통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기관

깡~니~프!

백동흙 뉴질랜드 2017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대상



점심때를 맞아 아시안 푸드코트에 생기가 넘쳐난다. 택시 운전하다 출출하던 차에 발길 향한 곳, 음식 충전소다. 직장인들이 음식을 먹으며 웅성대는 얘기 소리로 정겨운 분위기다.

“땡큐우~, 육개장 플리즈!”

한국 음식점에서 여종업원이 외친다. 당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 한국말 메뉴 음식 이름에 건장한 체구의 사모 안 젊은이가 벌떡 일어난다. 배식구로 가서 주문했던 육개장 쟁반을 받아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지켜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영어로 풀어쓰지 않고, 고유어로 외쳐도 단골들은 용케 알아듣고 찾아다 먹는다.

“땡큐우~, 포오크 바비큐 플리즈!” 하니 돼지 불고기 시킨 마오리 아줌마가 일어서서 나간다. “땡큐우~, 순두부 플리즈!” 하자 순두부를 주문한 중국 사람이 일어난다. 우리 음식 맛과 외국 요리 향이 어우러지는 식당가 분위기가 전통시장처럼 들썩인다. 푸짐한 양의 음식도 먹고 여러 생활 정보도 나누는 고국의 기사 식당 같다.

한국 타이 중국 키워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음식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아시안 푸드코트여서 음식도 다양했다. 옆 좌석을 보니 흰칠한 모습을 한 젊은 키워가 땀을 흘려가며 돌솥비빔밥을 비벼서 들고 있다. 참 신기하다. 육개장이 어떤 맛인지, 순두부가 왜 좋은지,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까. 단골 음식을 하나씩 골라서 저마다 좋다고 사 먹는 다민족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동료의 식 같은 걸 느낀다.

“힐튼 호텔 플리이즈!”

웬 아가씨가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다가와 택시 옆 좌석에 툅 하니 앉는다. 얼굴이 새끼망다. 목적지를 말하는 입안에서 치아가 하얗게 빛난다. ‘웬 흑인 아가씨?’ 오랜만에 흑인 손님을 태운 날이다. 어딘지 모르게 관록이 느껴진다. 펜로즈 비즈니스 파크에서 시내 힐튼 호텔까지 교통 사정도 좋다. 명랑 쾌활한 손님 덕에 운전하는 이도 덩달아 즐거운 마음이다.

“한~구~우~사~라~므?”

서툴게 우리말로 묻는다. ‘아니, 우리말을 어떻게 저렇게 알지?’ 호기심이 솟아오른다. 비즈니스 출장으로 서울·부산·광주에도 다녀왔단다. 어쩐지 관록이 느껴지더라니.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맡았던 그 흑인 여성을 닮았다. 우리말로 묻는 말에 잘한다고 맛장구를 쳐주자 한껏 기분이 좋아진 듯 환하게 웃는다. 자신이

아는 한국어를 뽐낼 때라고 느꼈는지 서툴게나마 섞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흥미 있게 들어주고 장단 맞춰 주다 보니 차안 분위기가 훈훈하다.

우리 고국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비즈니스 강국으로 역할을 하니 더불어 좋은 것도 많다. 남들이 친정집 이야기를 좋게 하면 시집은 사람도 듣기 좋아하듯, 외국 사람이 우리 고국에 대해 좋은 추억을 말하니 듣기가 딱 좋다. 인종을 뛰어넘어 서로 어울려 교류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만남의 시간, 참 좋은 세상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서로 맞장구치며 이야기하다 보니 시내 바닷가 호텔 앞이다.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택시 미터 요금을 묻는다. 전라도 사투리 말투에 난 그만 기절초풍하고 만다.

“월~매~유?”

지난달에 여대생을 태웠을 때도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이야기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북 영주에서 1년간 영어 원어민 교사로 근무한 학생이었다. 대학을 휴학하고 바로 체험한 사회생활이어서 좋은 추억이 났단다.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많았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국수 소주 삼겹살 상추 부침개까지...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음식이 뭐냐고 물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

“깡~니~프!”

‘?’

‘깡~니~프 가 뭐야?’

하며 고개를 가우뚱하자,

“상추 말고 깡~니~프!”

왜 졌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나? 깡쌔이나. 삼겹살에 상추보다 깡~니~프가 최고란다. 세상에, 고소하고 톡 쏘는 깡쌔 맛도 알다니... 상상도 못 한 일이다. 한국에서 어디가 좋았나 물었더니 시골 산골이란다. 젊은 나이에 의외의 취향이다. 제일 싫은 곳은 서울이라고. 다른 이들은 서울이 대단하다고들 이야기하던데 이것도 예외다. 사람과 차가 너무 많아 어지럽다고 말하는 데야 할 말이 없다.

천생 뉴질랜드 표 아가씨다. 불편해도 자연스러운 게 좋지, 편리하고 답답한 도시는 아니란다. 이제 이십 대 초반인데도 세상을 대하는 성향이 개성 있고 뚜렷하다. 산간지역 절을 다녀온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템플 스테이 추억이 잊히지 않는 감동이었다고. 동양철학에 매료된 아가씨였다. 여유로운 옛날 건축양식도 좋고 주변 산세가 참 조화로웠다고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자연에서 느끼는 평화로운 감정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 같다. 여대생의 이야기를 들던 내가 오히려 고국 산사 여행을

하고 싶어진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제는 좁지만, 깊이가 있는 문화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가끔 한 마디라도 우리말을 하는 손님을 태울 때면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다. 남미에서 왔다는 젊은이들을 쇼핑몰에서 태웠을 때 경험도 특이했다. 그들이 이곳에 유학을 와서 한국 유학생과 기숙사를 함께 썼다고 했다. 그 영향으로 한국어를 꽤 익혀서인지 기본적인 말은 곧 잘했다. 아들 또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지식 둔 아버지의 마음에 잘해주고 싶어 꽤 신경을 써줬다.

처음에는 잘한다고 칭찬해주다가 나중에는 까무러치게 놀랐다. xx! 같은 비속어나 욕을 서슴없이 해댔다. 큰일이었다. 그런 말을 쉽게 알려준 한국 젊은이를 찾아 야단칠 수도 없고 참 난처했다. 나쁜 말인 줄도 모르고 불쑥 내지르는 외국 젊은이들을 나무라기도 뭐했다. 그런 말은 F-word(fuck을 대신해서 쓰는 욕설)이니 사용하면 안 좋다고 타일러주었다. 썩스러웠던지 눈을 말뚝거리며 모호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쇼핑할 물품과 상자를 기숙사에 내려주자, 나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친구에게나 하는 반말인지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내뱉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개!” 장



푸짐하고, 영양 많고, 저렴하고... 50여 년 역사 향토음식 '춘천닭갈비' '춘천가면 꼭 먹어봐야' ... 닭갈비 음식점 300여 곳 달해



춘천시 명동닭갈비골목.

춘천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 닭갈비다. 현재 춘천에는 중앙로와 금강로 사이의 명동닭갈비골목을 비롯해 신북읍닭갈비거리, 온의동닭갈비거리 등이 산재해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내의 닭갈비 음식점은 무려 300여 곳에 이른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명동닭갈비골목이다. 도심에 있는데도 춘천 역과도 가까워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명동길의 이 뒷골목에는 17곳의 닭갈비 전문식당이 빼곡히 들어서 오늘도 손님을 반갑게 맞는다. 간판이 걸려있는 남쪽 초입까지 골목길이 약 100m에 이른다. 이들 조형물과 간판에 새겨진 대로 1968년에 닭갈비 골목이 형성됐으니 올해로 어느덧 만 50년째를 맞았다.

춘천이 닭갈비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춘천시청은 그 연원을 1960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막걸리 안주용으로 돼지불고기를 팔던 한 선술집 주인이 돼지고기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대신 닭고기에 돼지불고기의 양념을 넣은 다음 12시간을 재웠더니 그 맛이 그만이었다. 주로 가스 불판에 닭고기를 굽는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숯불 화로 석쇠나 드럼통 연탄불에 닭고기와 썬 고구마 등을 얹어 요리했다.



춘천 여행의 마침표, 막국수와 닭갈비.

닭갈비 국제화의 주역 '겨울연가'

춘천 시내 대표명소인 명동의 뒷골목에 들어서기 시작한 닭갈비 음식점은 1970년대 들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양이 푸짐한 데다 영양도 많고 값까지 싸서 군인과 대학생 등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 1980년대에 지금처럼 각종 채소를 넣고 볶는 방식으로 진화한 가운데 전국의 공중파



가스 불판에서 익혀지는 닭갈비(왼쪽)와 숯불 석쇠에서 구워지는 닭갈비(오른쪽).

방송에 소개되자 그 명성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류 열풍이 불러일으킨 KBS TV 드라마 '겨울연가'는 닭갈비의 국제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지역을 무대로 제작된 '겨울연가'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닭갈비 음식도 덩달아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근래 들어 일본, 중국, 대만 등 외국 여행객들이 닭갈비 맛을 보러 이곳에 찾아오는 이유다.

닭갈비 음식은 그 이름처럼 갈비 부위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주로 닭다리살을 발라내어 양념한 뒤 일정 시간 동안 재워두었다가 요리에 사용한다. 닭갈비는 양배추, 고구마, 양파, 구멍떡 등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불판이나 석쇠에 올려져 구워진다.

닭갈비와 궁합 맞는 메밀 막국수

닭갈비 맛을 극대화하는 요소 중 하나는 양념장의 오묘함이다. 양념이 재료들에 깊숙이 스며들수록 맛의 매력은 더해진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가래떡인 구멍떡을 이용하는 것도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닭갈비가 익은 다음에는 우동 사리를 양념장과 함께 올려놓고 뒤섞어주면 색다른 별미가 추가된다. 가격은 명동닭갈비골목의 경우 닭갈비 300g 1인분에 1만1천 원, 막국수 한 그릇에 6천 원으로 이국식당들이 동일한 값을 적용하고 있다.

닭갈비 음식의 매력 중 또 하나는 마지막에 즐기는 볶음밥이다. 닭갈비와 우동 사리 등을 다 먹은 뒤 밥을 철판에 펼쳐 볶으면 바닥에 남은 닭기름과 섞여 고슬고슬하면서도 맛깔스러운 후식이 된다.

닭갈비와 궁합이 맞는 또 다른 메뉴는 메밀 막국수. 춘천의 전통적 향토음식인 막국수는 시원하면서도 맛이 깔끔해 영양은 물론 입가심용으로도 그만이다. 영양학 관점에서 닭고기는 만족할 만하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필수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두뇌 성장을 돕고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참**

닭갈비 축제

닭갈비를 내세운 축제가 해마다 여름이면 열린다. 8월 말과 9월 초에 춘천역 앞의 옛 미군기지 캠페이지에서 '춘천막국수 닭갈비축제'가 펼쳐진다. 2005년부터 개최하던 닭갈비축제는 2008년부터 기존의 막국수축제와 통합돼 전국닭싸움대회, 요리시연회, 전국씨름대회, 막국수닭갈비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춘천을 대표하는 양대 음식인 막국수와 닭갈비가 지역축제를 통해서 나란히 손잡은 셈이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 와서 닭갈비 음식을 즐기고 곳곳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보면 금상첨화다. 그중 하나가 국내 최대의 유리다리인 소양강 스카이워크. 길이 174m, 높이 7.5m의 이 다리를 건다 보면 아슬아슬한 스릴을 짜릿하게 느낄 수 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 처녀상은 덩이다. 동양 최대의 사력담인 소양강댐은 북한강 유역의 유일한 다목적댐으로 소양호의 아름다움을 주변 자연경관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배편을 이용해 오봉산 기슭에 있는 유서 깊은 사찰 청평사에 다녀오는 것도 멋진 체험이다.

남이섬

남이(南怡)섬은 행정 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속해 있고 길은 경기도가 평균으로 통한다. 둘레가 약 5km로 작은 섬이지만 1960년대부터 나들이



터로 이름을 떨쳤다.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가평역에서 남이섬으로 바로 통한다. 남이 장군의 묘역이 있는 문화유적지이자 관광휴양지로 개발된 곳으로서 2016년 현재 세계 122개국으로부터 130만 명의 외국인관광객을 포함, 연간 총 33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힌다.

남이섬은 원래 섬이 아니라 구릉지로 형성된 작은 봉우리였다. 1944년 청평댐을 만들 때 북한강 강물이 차서 생긴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섬이다. 금융인, 출판인이자 문화예술후원자인 민병도(1916~2006) 씨가 1965년 토지를 매입, 모래뿐인 불모지에 다양한 수종의 육림을 시작했다. 1960~90년대에는 최인호의 '겨울 나그네' 촬영지 및 강변가요제 개최지로 알려져 행락객들의 유원지로 인식됐으나, 2001년 12월 KBS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을 계기로 대만, 일본,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제적 관광지로 변모했다.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하세요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을 성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성인 분야는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로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가운데 한글문학 창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와 단편소설은 자유 주제이고 체험수기는 이민 후 거주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본인 또는 가족·친지의 체험을 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교생으로 나는 청소년 부문은 거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모국 방문·한국어 학습 경험',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현지 생활 체험' 등입니다. 출품작은 미발표 창작물로 복수 분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역대 성인부문 대상과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동일부분 응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단은 문단의 중진 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월 중순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인부문 대상(300만 원)과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100만 원) 등 30명의 수상자와 한글학교 2곳에 총 3천53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지급됩니다. 올해는 재외동포 이민사 기록문학 활성화를 위해 체험수기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ean.net)를 참고하거나 홍보문화부(+82-2-3415-0097, culture@okf.or.kr)로 문의하세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재외동포문학상이 2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한국시간기준
2018. 4. 2 TUE ~ 5. 31 THU

응모 자격
성인부문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부문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외동포 청소년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우수상, 가작, 장려상 수상자는 응모 가능)

공모 분야 및 주제
성인부문 |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시·단편소설 : 자유주제
 • 체험수기 :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을 진솔하게 그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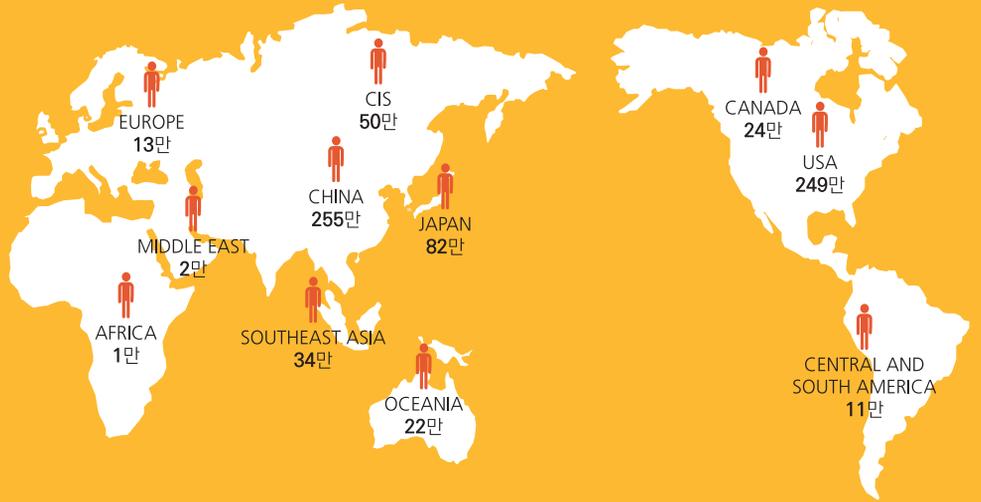
청소년부문 | 중고등, 초등 글짓기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 기타 자유로운 주제(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체험담) 등

시상 내역
총 상금 3,530만원

*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역대 수상작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 분들에게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www.korean.net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Tel. +82-2-3415-0097
 E-mail. culture@okf.or.kr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